



Report 사회지표 || 2021년 9월 16일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케이스탯

2021년 9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상승세 지속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소폭 하락
- _ 정부 신뢰도 : 반등세 유지되면서 45% 기록
- _ 정부정책 만족도 : ‘만족한다’ 소폭 상승세 유지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2%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부정 전망 우세 지속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흐름 지속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우위 지속
- _ 주식 가격 전망 : ‘지금과 비슷할 것’ 상승

■ 9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 _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84%
- _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56% vs ‘없다’ 44%
- _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노력으로 ‘불가능’ 75%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9월 3일(금) ~ 9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1\%p$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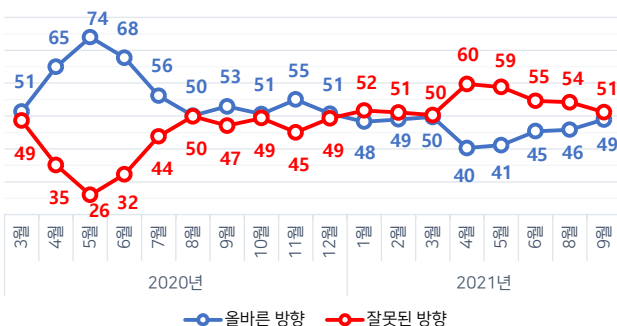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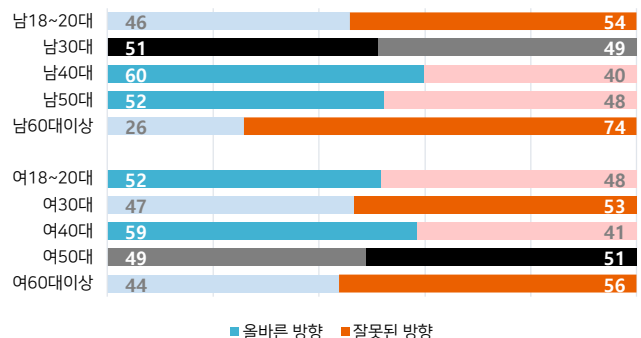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상승세 지속

-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 상승하면서, '잘못된 방향'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음
- 4월 재·보궐선거 직후 40%로 급락한 '올바른 방향' 의견이 매월 조금씩 상승, 이번 9월에는 '올바른 방향' 49% vs '잘못된 방향' 51%를 기록함
- 계층별로 보면 우세한 의견이 다른데, 먼저 '올바른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호남 △진보층 △화이트칼라, 은퇴.무직자 △사회이의 중시층, 중간층 등임
- 긍정, 부정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50대 △PK 등임
- '잘못된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30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경기.인천, 충청, T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학생 △개인이의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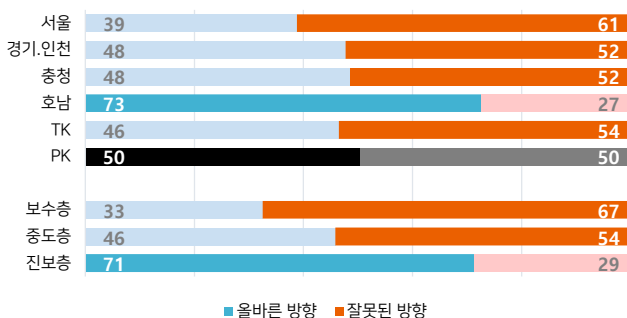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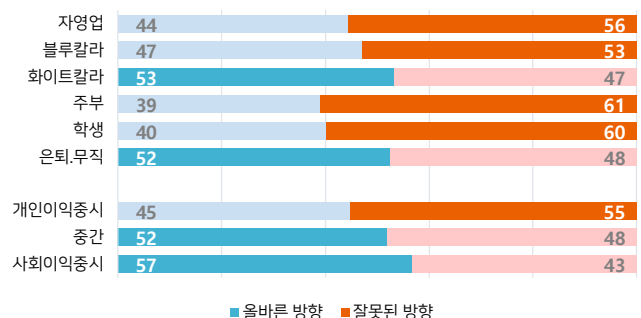
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단위:%)



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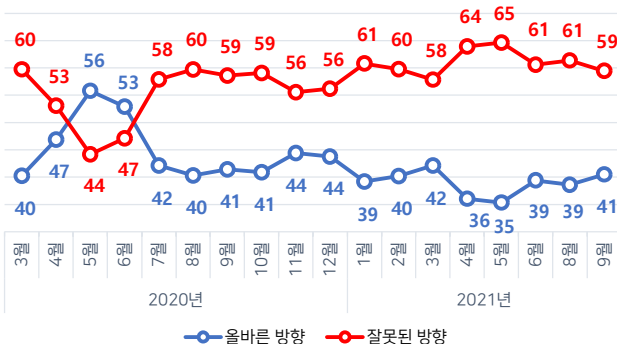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는 현 정부에 평가 여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9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됨 : 국정운영 긍정평가 관련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함
- ☑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의 중심이 정당과 대선 후보로 이동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부정평가 여론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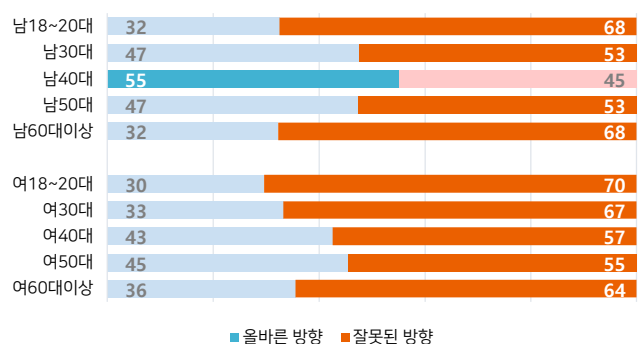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소폭 하락

-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계속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추세적으로는 '잘못된 방향' 의견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임
 - 9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41% vs '잘못된 방향' 59%로, '잘못된 방향' 여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고,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40대 남성, 호남, 진보층에 그침
 - 이러한 계층별 우세 현황은 지난 8월 조사 결과와 같음
- '잘못된 방향'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보수층 △주부,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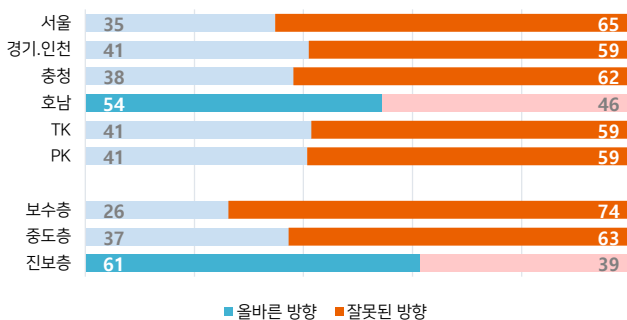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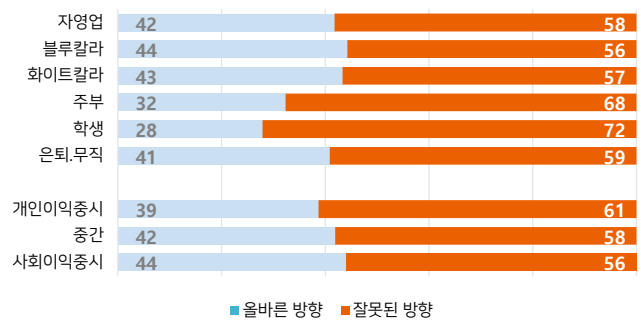
9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9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9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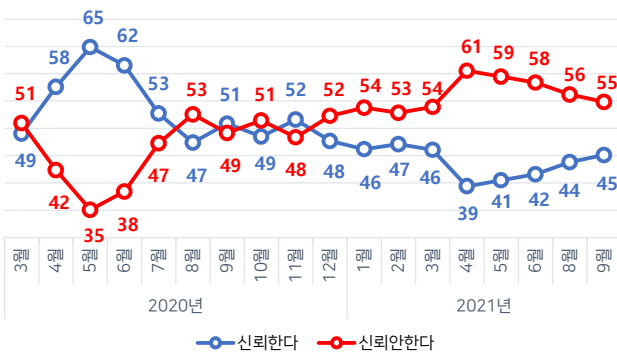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은행이 9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은 0.8%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국가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은행은 올해 4%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함
 - : 특히 2분기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민간소비로, 2009년 2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인 3.6% 증가율을 기록함
- ☑ 국가경제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회복세를 보이고 민간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이 2020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세함
- ☑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9월 조사에서 '올바른 방향' 의견이 소폭 상승한 것은 주목됨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른바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4차 대유행 상황과 무관하게 다음 달에도 소폭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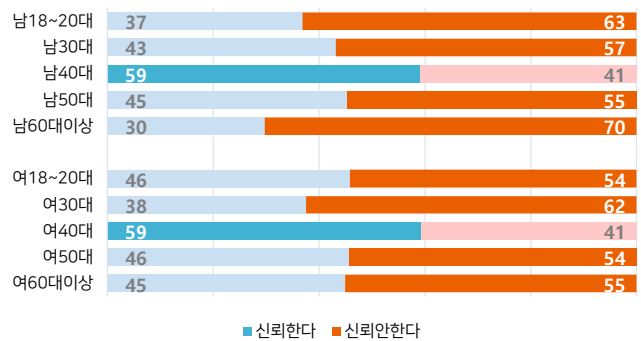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반등세 유지되면서 45% 기록

- 정부 신뢰도는 지난 4월 이후 매달 소폭 반등세를 보였는데, 9월에도 이러한 반등세가 유지됨
 - 9월 정부 신뢰도는 45%로, '신뢰 안한다'는 의견과의 격차가 10%p로 줄어들
- 계층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계층에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30대 △서울 △보수층 △학생 등임
- 이에 비해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40대 △호남 △진보층 △사회이의 중시층 등임
 - 화이트칼라 계층은 긍정/부정 의견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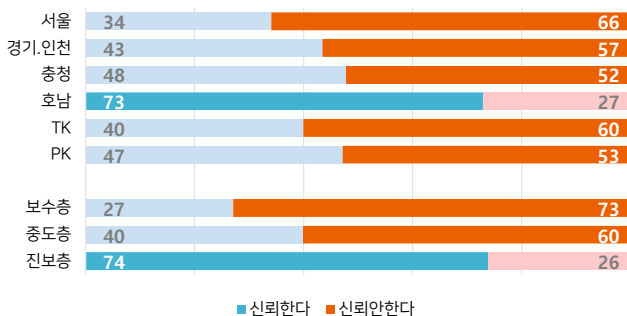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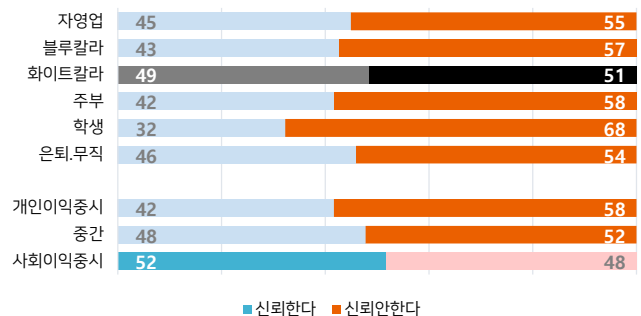
9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9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9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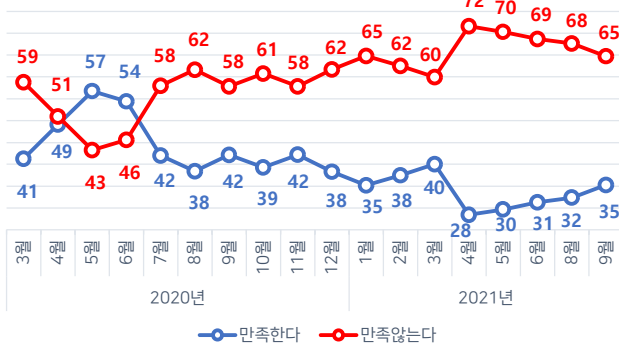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여야 대선주자 경선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 신뢰도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 이는 다가오는 대선이 '정권교체 vs 정권유지' 구도로 치러질 경우, 점점 더 여권에 유리해진다는 의미임
- ☑ 또한 여야 대선주자에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현실을 볼 때, 야당 대선주자의 '정권교체' 메시지 영향력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야당 입장에서, 향후 야당 대선주자들의 '정권교체' 메시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이후의 비전제시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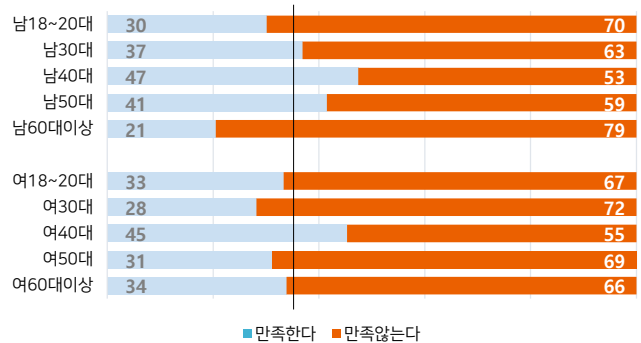
□ 정부정책 만족도 : '만족한다' 소폭 상승세 유지

- 정부정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 않는다'는 부정평가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만족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냄
 - 9월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35%로, 최저치를 기록한 4월(28%)에 비해 7%p 상승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호남과 진보층에서만 우세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30대 △서울, 충청권, TK △보수층, 중도층 △주부,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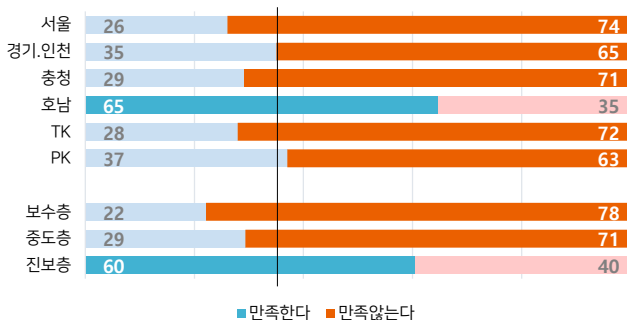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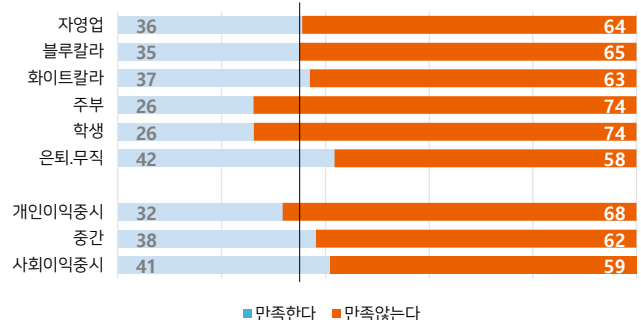
9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9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9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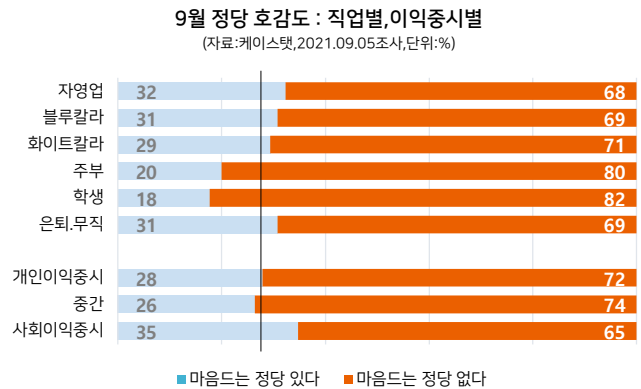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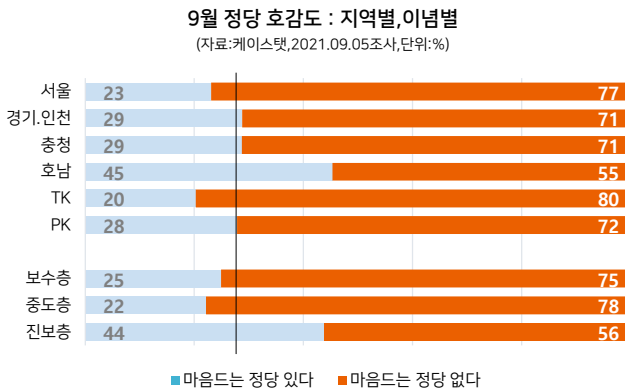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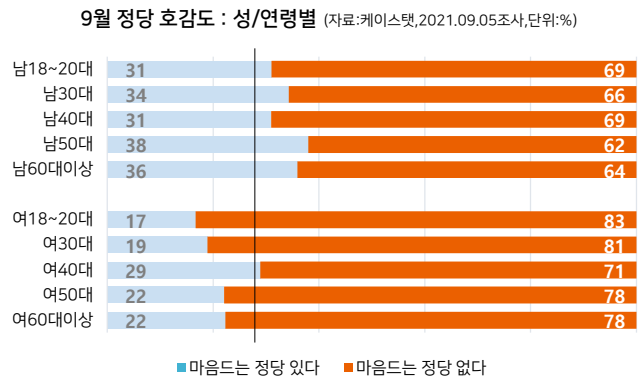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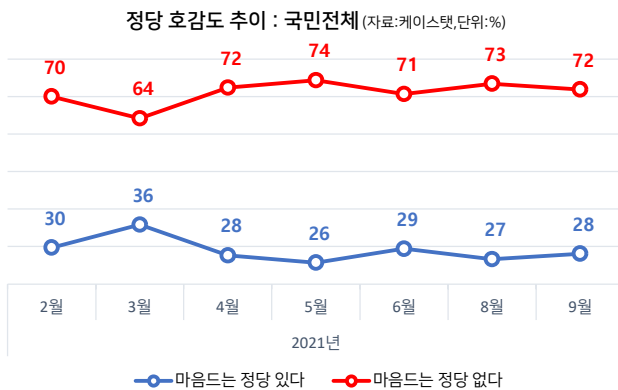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정책 만족도는 정부 신뢰도에 비해 10%p 가량 낮은 경향을 보임
 - : 9월 조사 결과, 정부정책 만족도 35%, 정부 신뢰도 45%
- ☑ 정책 만족도에 비해 정부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비판하지만, 정책을 떠나 현 정부 자체를 신뢰하는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임
 - :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냉정하게 비판하면서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것임
- ☑ 이러한 배경에는 이른바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진영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 부동산 정책 등 개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보다 정부 신뢰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권교체 vs 정권유지 선호도 등이 더 주목해야 할 여론임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2%

- 국민 대다수는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흐름은 조사 이후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음
- 9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의견은 28%이고, '없다'는 의견은 72%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없다'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TK △중도층 △주부,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있다'는 의견이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호남 △진보층 △사회이의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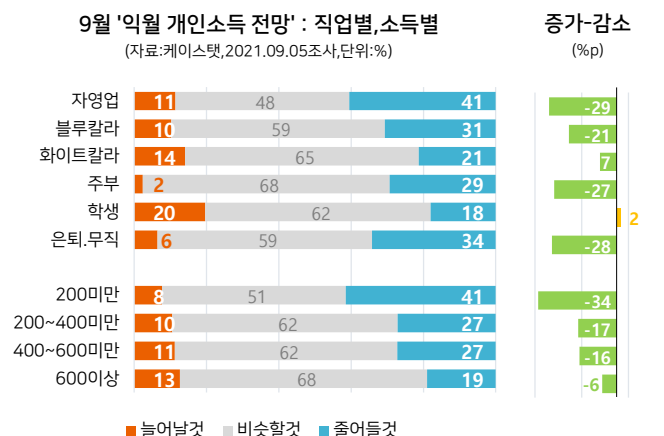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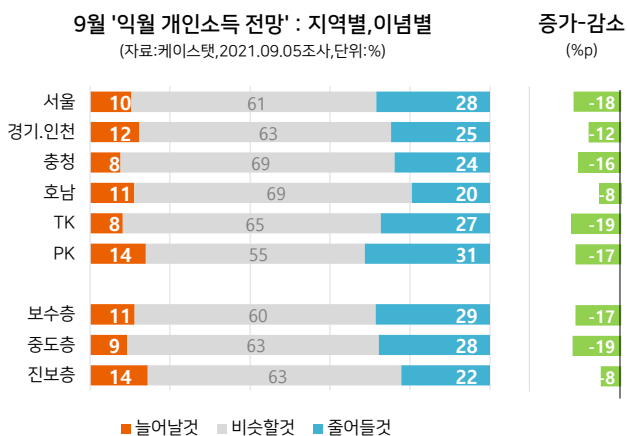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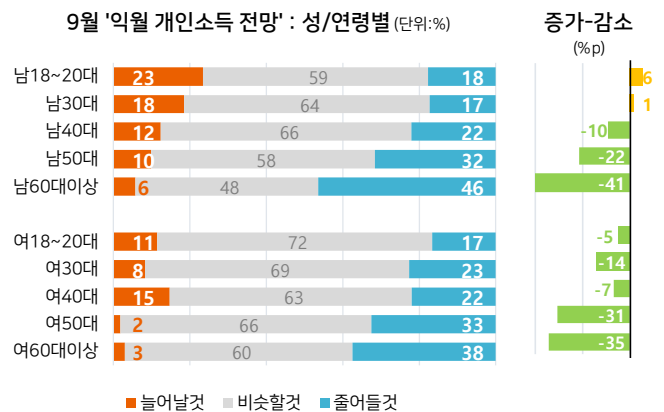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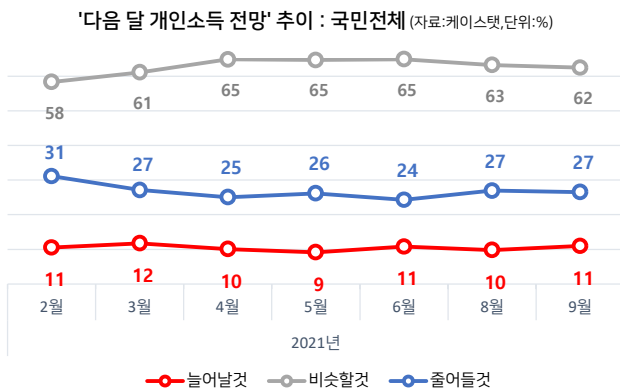


Kstat Point

- ☑ 보수층과 진보층의 정당 호감도는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있음
 - :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보수층은 25%인데 비해 진보층은 44%임
- ☑ 이는 조사 시작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보수층 중에서 '국민의힘'을 마음에 들어하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됨
 - : 즉, 보수층의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임
- ☑ 이렇게 볼 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보수층들을 주목해야 하고, 이들을 결집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
 - :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현실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느냐 여부에 향후 대선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부정 전망 우세 지속

- 국민들은 다음 달 개인 소득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줄어든 것으로 생각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높은 가운데 '지금보다 줄어든 것'이라는 부정 응답이 27%로 조사됨
 -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11%에 그침
 - 개인 소득에 대한 부정전망 우세 흐름은 조사를 시작한 2월 이후 한결같은 양상임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든 것'을 뺀 '차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8월과 유사한 -16%p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마이너스 수치가 큰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자영업자, 주부,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학생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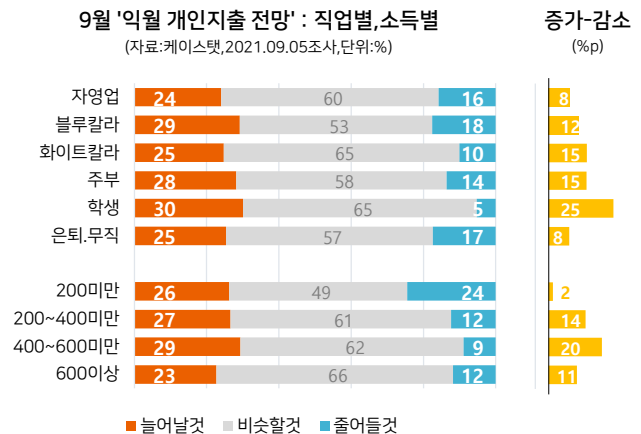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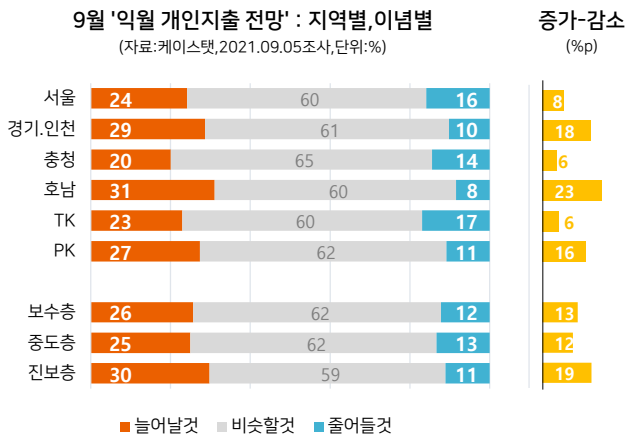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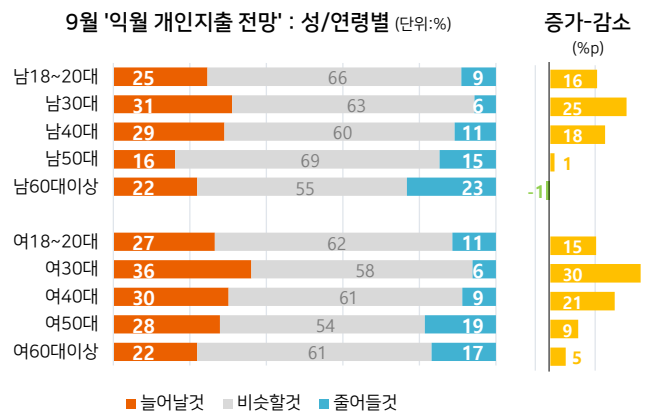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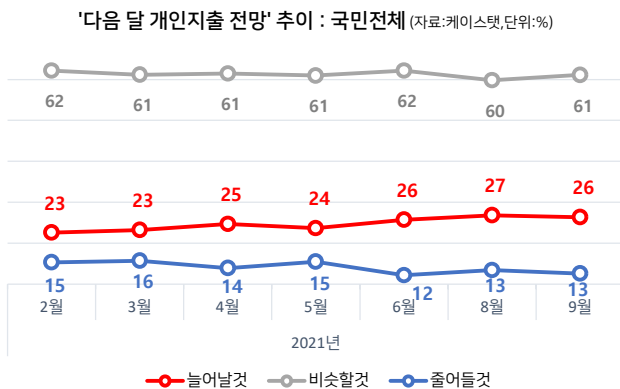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개인 소득에 대한 전망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임
: 직업군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차이'를 기록한 계층이 자영업자임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소득별 전망을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차이' 수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음
- ☑ 한편, 9월 6일부터 지급된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소득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흐름 지속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을 보면, 이전 조사와 차이 없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1%이고, '지금보다 늘어날 것'은 26%로 조사됨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14%p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늘어날 것 - 줄어들 것)가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차이가 큰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3040세대 △호남 △학생 △400~6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상대적으로 플러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60대이상)는 -1%p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기록 △여자 5060세대 △충청, TK △자영업,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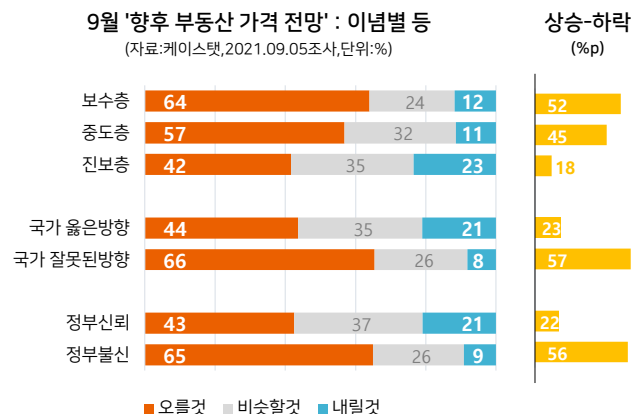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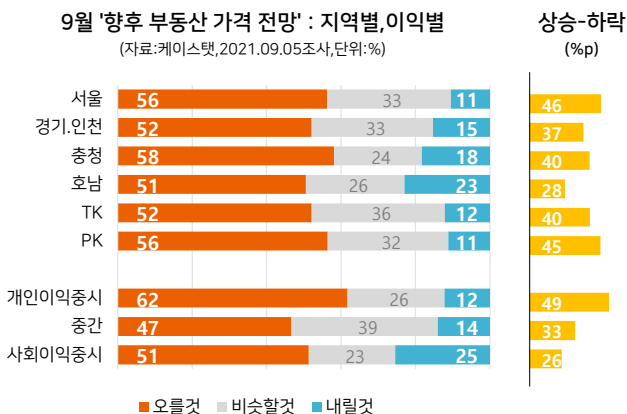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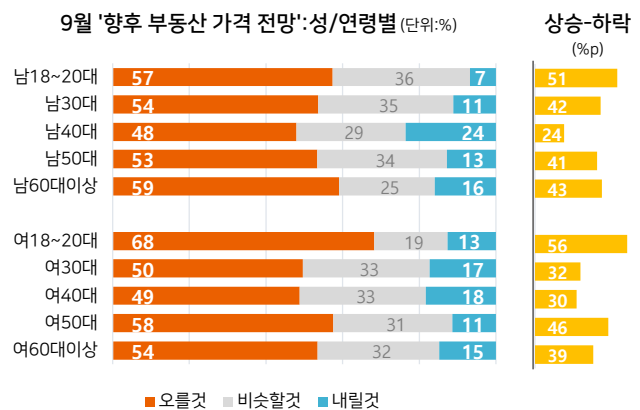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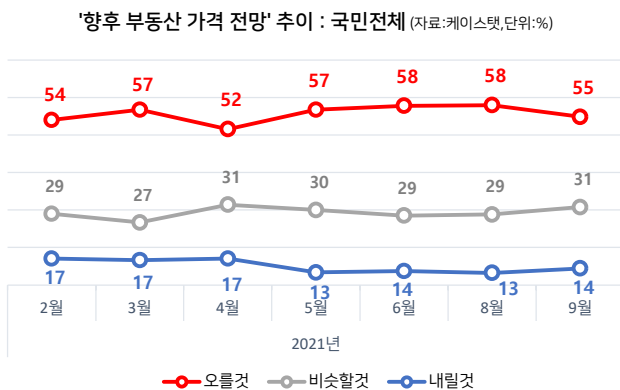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음 달 소득·지출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
 - : 코로나19가 개개인의 경제 사정 및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임
- ☑ 한편, 가계부채는 8월 말 현재 1,046조 3천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함
 - : 가계부채는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모두 증가해 주택담보대출은 746조 2천억원이고, 기타대출은 281조 1천억원을 기록함
 - : 기타대출 증가는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경제상황에 따른 결과로 보임

□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우위 지속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은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9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55%, '지금과 비슷할 것' 31%, '지금보다 내릴 것' 14% 등임
- 계층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 - 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여자 50대 △서울 △개인이익 중시층 △보수층 △국가 잘못된 방향 △정부 불신층 등임
- 상대적으로 '차이'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40대 △호남 △사회이익 중시층 △진보층 △국가 옳은 방향 △정부 신뢰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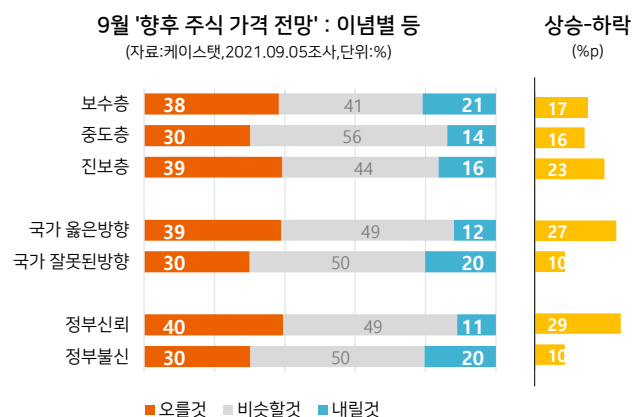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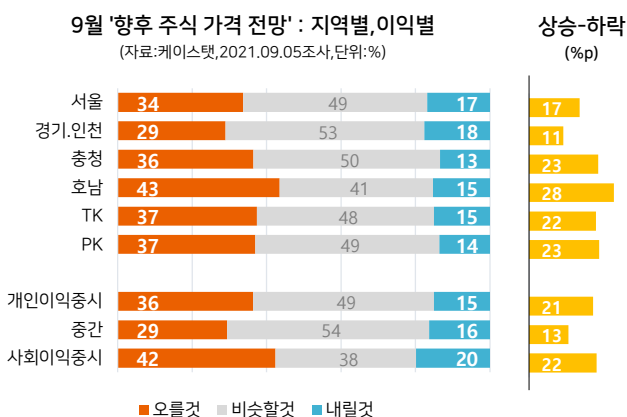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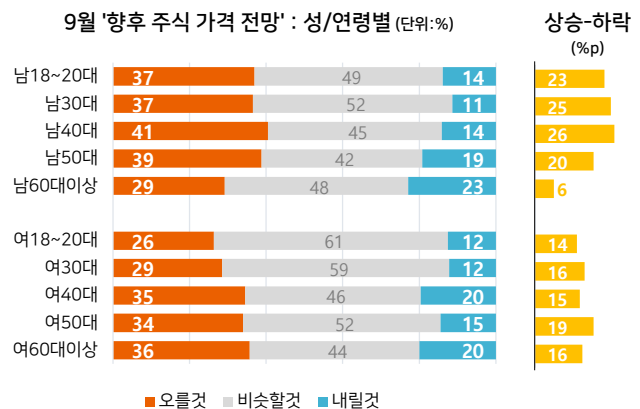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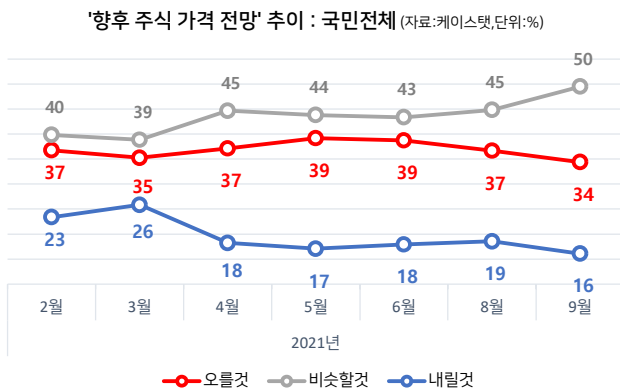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부동산원 월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7주 연속 최고치를 유지하고, 상위 20% 주택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15억원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
- ☑ 이러한 현실에 따라 국민들의 부동산 가격 전망 역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특히 18~20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 이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임
 - :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 18~20대가 오는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됨
 - : 남자 18~20대는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 계층이 된 지 오래인데, 여자 18~20대까지 가세할 경우 여권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됨

□ 주식 가격 전망 : '지금과 비슷할 것' 상승

- 주식 가격에 대한 국민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50%로, 전 달에 비해 5%p 증가함
- '지금보다 오를 것'은 34%, '지금보다 내릴 것' 16% 등으로 조사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충청, 호남, PK △진보층 △국가 옳은 방향 △정부 신뢰층 등임
-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경기.인천 △국가 잘못된 방향 △정부 불신층 등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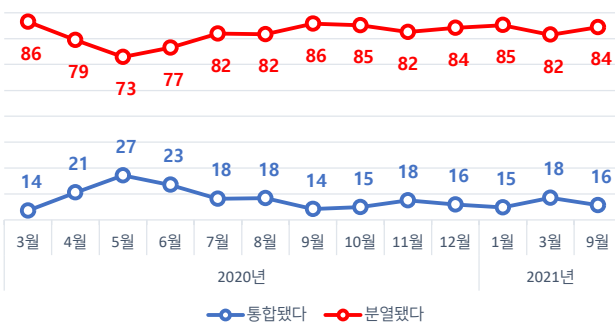
- ☑ 최근 주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주가에 대한 국민들 전망 역시 전 달에 비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낮아지고,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9월에도 미국의 테이퍼링(채권 등 자산매입 축소) 실시 여부에 따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주가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임
- ☑ 한편, 부동산 가격 전망과 주가 전망을 둘러싸고 정치적 태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특징이 뚜렷함
: 보수층. 국가 잘못된 방향. 정부 불신층 :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치는 높고, 주가 상승 전망치는 낮음
: 진보층. 국가 올바른 방향. 정부 신뢰층 :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치는 낮고, 주가 상승 전망치는 높음

9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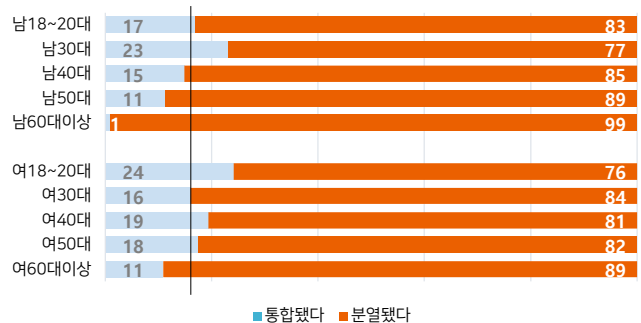
□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84%

- 국민 절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회가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분열됐다'는 응답이 84%로 절대적으로 높음
 - 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분열됐다'는 의견이 한결같이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분열됐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충청 △보수층 △주부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통합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18~20대 △호남 △진보층 △블루칼라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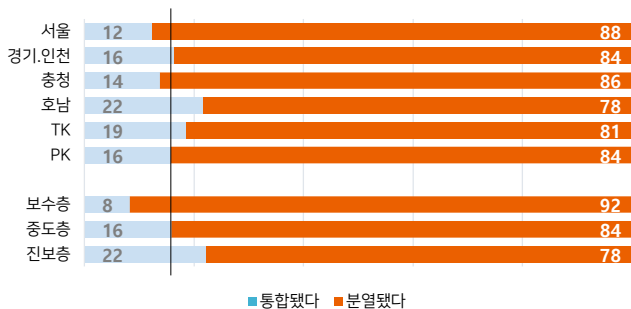
사회통합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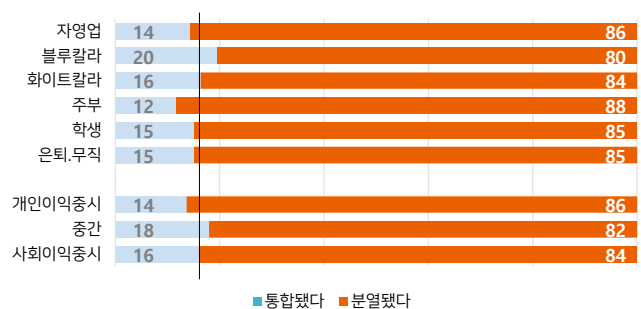
9월 사회통합성 평가 : 성/연령별 (2021.09.05조사,단위:%)



9월 사회통합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9월 사회통합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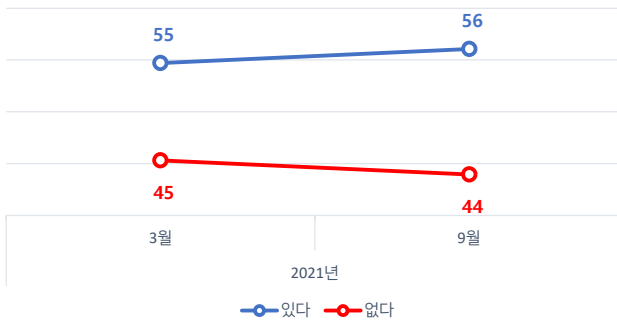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는 국민생각이 거의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통합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지점임
- ☑ 특히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진영 대결' 양상이 재현될 경우, 국민분열 양상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대선 후보 중 누구도 '국민통합'과 관련된 아젠다 또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임
 - : 이는 후보들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진영 대결'로 치르겠다는 의미로, 격렬한 진영 대결이 예상되는 대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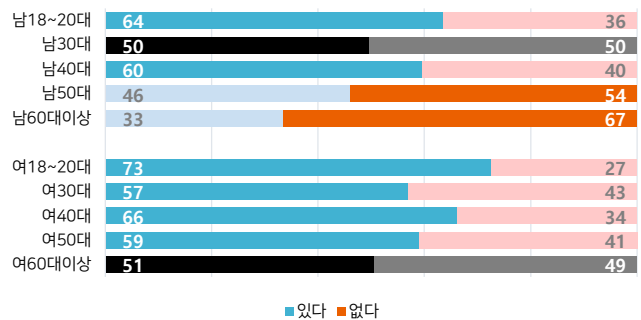
□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56% vs '없다' 44%

-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필요한데, 국민 여론은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소폭 우세함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있다' 56%, '없다' 44%로 조사됨
 - 지난 3월 조사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40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호남, TK △진보층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이에 비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서울 △주부 등임
 -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60대이상 △보수층 △블루칼라 종사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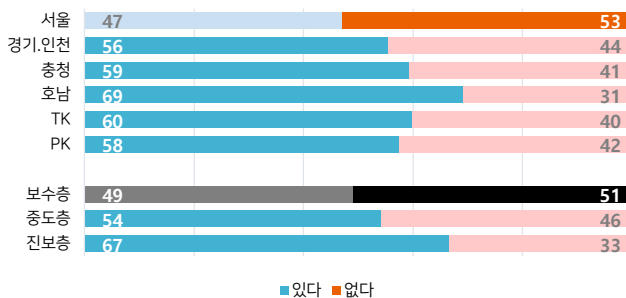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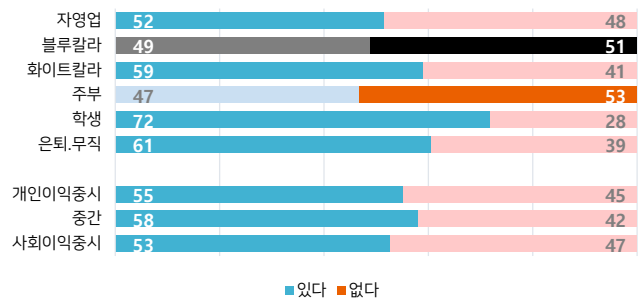
9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9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9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직업별,이직종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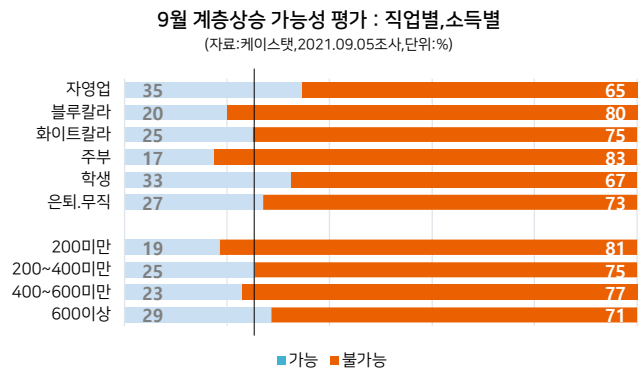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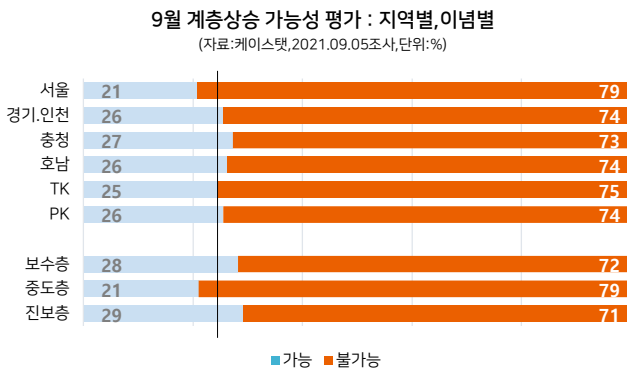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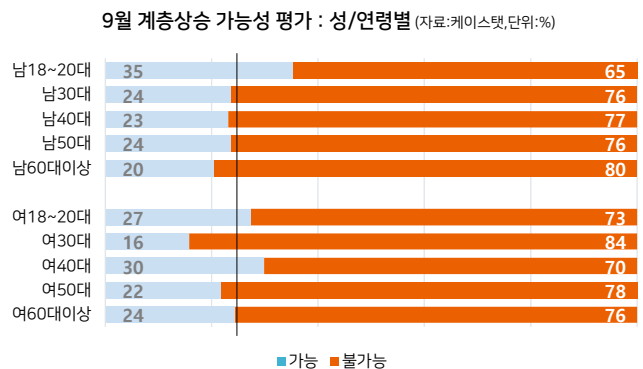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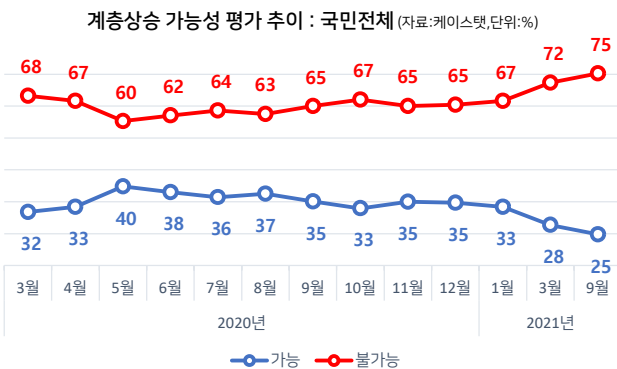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엇갈리고 있음
 - :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있다'는 의견이 높음
 - : 이에 비해 남자 5060세대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앞서 성/연령층과 대비됨
- ☑ 한편, '보편적 가치'를 주장 또는 추구해야 하는 공론의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임
 - : 먼저, 정치권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측면이 강함
 - : 언론 역시 보수/진보 언론으로 대변되듯 진영 논리를 생산·확대할 뿐, '공론의 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국민의 언론 신뢰도는 23%에 그침(케이스탯, 8월 사회지표 보고서 참조))
 - :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도 과거와 달리 진영으로 나누어져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

□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 노력으로 '불가능' 75%

- 우리 사회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국민 중 75%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함
 -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 인식이 더 악화된 것임
- 모든 계층에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30대 △서울 △중도층 △블루칼라, 주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40대 △진보층 △자영업, 학생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Kstat Point

- ☑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 가구(소득 10분위 중 1분위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4.5세대로 추정함 (자료, 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 : 한국은 이보다 좀 더 많은 5세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소득분위 고착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함
- ☑ 또한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1998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과 2019년 소득별 GDP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자료, WID :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 : 1998년, 소득 상위 1%가 GDP 8% 점유 / 소득 하위 50%가 GDP 20% 점유
 - : 2019년, 소득 상위 1%가 GDP 15% 점유 / 소득 하위 50%가 GDP 16% 점유
 - : 즉, 2019년의 경우 소득 상위 1%와 하위 50%가 가져간 소득(GDP)이 거의 비슷함
-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기에, 우리나라 역시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 스탓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케이 스탓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 스탓 리포트 36호] 발간 안내

케이 스탓 리포트 36호는 『한국인 소속감 집중 분석』이라는 주제로 9월 30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